

피부착색 자가관리

03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증상 악화

- 피부착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심리적 스트레스로 견디기 힘든 경우

MEMO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피부착색

ASAN MEDICAL CENTER PATIENT FAMILY EDUCATION GUIDE

서울아산병원 | 암병원 | 암교육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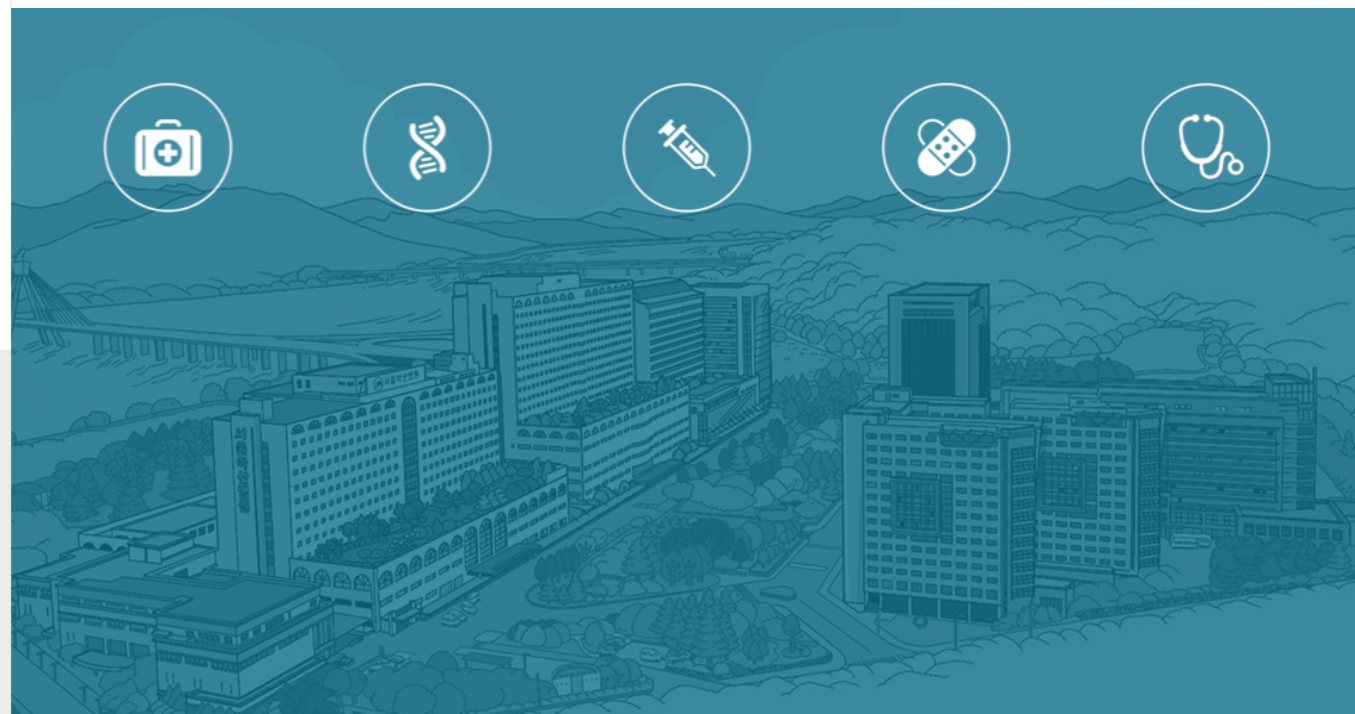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05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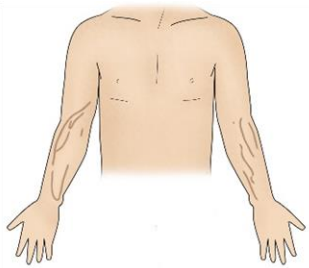
대표전화 : 1688-7575

홈페이지 : www.cancer.amc.seoul.kr



피부착색 자가관리

01 증상은 왜 나타나나요?



일부 항암제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피부를 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과 구강 점막, 혀, 손바닥과 발바닥이나 정맥 혈관을 덮고 있는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피부착색은 치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가 검어진다고 해서 항암치료를 중단하거나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피부착색은 항암치료가 끝나면 수개월에 걸쳐 점차 열어지거나 없어지지만, 개인에 따라 영구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련 교육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피부 관리
애니메이션



피부착색 자가관리

02 대처 방안

- 01 피부착색이 될 수 있는 항암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 02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삼갑니다.
- 03 흐린 날이더라도 낮 동안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04 낮에 외출할 때는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 05 외출 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입술 보호제를 입술에 발라줍니다.
- 06 외출 시 긴 소매옷과 긴 치마, 바지를 착용합니다.
- 07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흰색이나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합니다.
- 08 장갑이나 양말,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합니다.
- 09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을 사용합니다.

